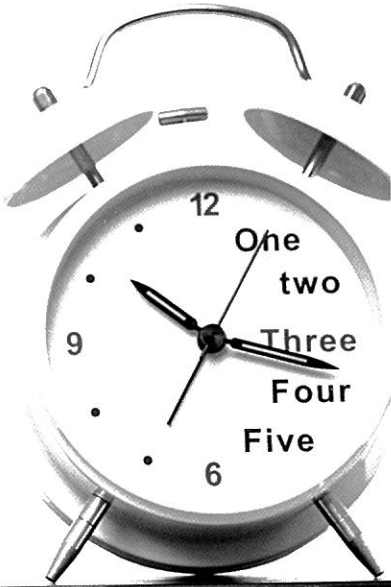


술과 관련된 New Book



스피릿 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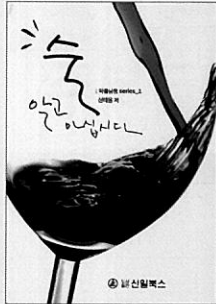


탁재형 지음 | 사공사
정가: 13,000원
2013년 2월 26일 출간

여행의 순간을 환율하게 만드는 한 잔의 술 『스피릿 로드』, EBS TV 프로그램 《세계테마기행》의 PD 탁재형이 세계를 돌아다니며 각국의 '술'에 대해 이야기한 책이다. 술이란 한 민족이 살고 있는 자연 환경과 성정과 특질이 농축된 문화의 결정체라고 말하며, 여행지에서 마시는 술이야말로 그 지역의 문화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경험이라고 강조한다. '한 대 언어맞은 것 같은' 강렬함을 선사했던 어떤 술의 맛과 향기, 그리고 술에 얽힌 때론 황당하고 때론 진중한 에피소드들은 '술'에 대한 저자의 진정성을 느끼게 해준다.

술 알고 마십시오

신태용 지음 | 신일박스
정가 : 18,000원
2013년 1월 9일 출간



『술 알고 마십시오』는 술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를 소개하며 과음하지 않도록 술을 다룬 책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술이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술을 마시면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알코올 중독은 무엇이며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개하고 술에 대한 Q&A를 정리했다.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를 수록함으로써 술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준다.

와인의 문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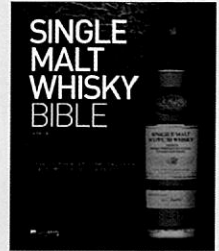
고형욱 지음 | 샬림
정가 : 12,000원
2013년 4월 12일 출간



기록된 바에 의존하자면 최초로 와인을 마신 인물은 노아였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와인을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라는 창세기의 구절을 보면 와인을 만든 이는 노아이며, 가장 먼저 취했던 이도 노아이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노아의 방주가 머무른 곳은 현재의 이란 서부 지역에 위치한 엘부르즈산맥을 비롯해 몇 군데가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와인의 역사와 연관지을 때 이는 어쩌면 우연이 아닐 것이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기원전 4000년 후반에 기록된 점토판이 발견되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정착했던 수메르인들이 남긴 기록이다.

싱글몰트위스키 바이블

유성운 지음 | 위즈덤스타일
정가 : 23,000원
2013년 2월 1일 출간



싱글몰트 입문자와 위스키 애호가를 위한 국내 최초 본격 싱글몰트 위스키 가이드북 『싱글몰트위스키 바이블』. 회소성이 높은 몰트 위스키 중에서도 한 증류소의 원액만을 사용하는 싱글몰트 위스키.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으며 맛과 향도 그 증류소만의 독창성과 개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받는다. 이 책은 싱글몰트위스키의 역사와 제조과정부터 스코틀랜드 증류소 탐방, 필수적인 매너와 기본적인 상식까지 풍부한 자료를 담고 있다. 특히 싱글몰트위스키를 생산하는 스코틀랜드 33개 주요 증류소를 방문한 견문록이 돋보인다. 증류소의 역사부터 재료, 테루아, 제조방식, 테이스팅 등을 직접 찍은 사진을 곁들여 꼼꼼하게 소개한다.

우판사 교수의 와인 교과서

우판사 지음 | 김창용 감수 | 지식여행
정가 : 28,000원
2013년 03월 10일 출간



『우판사 교수의 와인 교과서』는 와인의 역사에서부터 와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와인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책이다. 기본에 충실하고 되도록 쉽게 설명하려고 애쓰는 저자의 노력이 엿보인다. 호주,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다양한 나라를 통해 와인을 살펴본다.